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한국의 평화 사상과 '평화의 섬' 제주도^(*)

김 석 근

(연세대학교)

〈국문 요약〉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도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현실에서 테러와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갈등과 폭력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평화'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제주도나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를 '한국의 평화 사상과 이념'이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서 '삼무(三無)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같은 '삼무정신의 전통'은 한국의 전통적인 평화 사상과 강한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부연하자면 전통적인 평화 사상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가 적극적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평화 관념 내지 사상은 제주도가 오랜 동안 그려온 독자적인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적, 사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평화사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고유성'과 함께 '일반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전통사상—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 및 사마니즘 등—에서 볼 수 있는 평화 관념과 제주도의 그것 사이에는 밀접한 사상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같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평화사상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그같은 정신은 제주도에서 가장 분명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 이 글은 지난 2006년 1월 27일 개최된 <세계평화의 섬 기반 구축 세미나>(「세계 평화의 섬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 주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 세계평화의섬포도민실천협의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토론과 더불어 제주도 출신으로서의 감각과 체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신 부남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 김성도

지난(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제주도는 '갈등 해소와 평화 정착'의 섬으로, 나아가서는 '국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이고, 21세기 평화 연구와 실천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주제어 : 제주도, 평화의 섬, 국제 자유도시, 삼무정신, 평화사상, 화해와 상생의 정신, 갈등 해소, 평화 정착

1. 머리말: '세계 평화의 섬'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Island of World Peace, Jeju)'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12조에 근거해서, 정부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이다.¹⁾

세계적으로 보자면, 몇몇 '평화의 도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평화의 섬이라는 점에서 단연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991년 한소 정상회담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펼쳐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²⁾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세계 평화의 섬'은 탈냉전(post-cold war)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팽배하기도 했지만,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갈등과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 비례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는 한층 더 간절한 그 무엇이 되

1)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상생시키며, 평화정책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언문」 2005년 1월 27일.

2) '평화의 섬' 구상과 논의 과정, 공론화 및 실천 과정, 그리고 지정 경위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섬 홈페이지 <http://peace.jeju.kr> '논의의 전개과정'과 '지정경

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때문에 향후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가 걸어가게 될 길은 단순히 제주도나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아직도 냉전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평화 운동과 실천의 거점이 되어줄 것을,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듯 하다.

그 같은 흐름과 전망에 적극 공감하고 또 응원을 보냄과 동시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를 '한국의 평화 사상과 이념'이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서 "삼무(三無)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는데, 필자는 그 같은 '삼무정신의 전통'이 한국의 전통적인 평화 사상과 강한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부연하자면 전통적인 평화 사상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가 적극적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³⁾ 다시 말해서 한국의 평화사상의 일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평화에 관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적, 사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성'과 함께 '고유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한국의 평화사상에 대해서,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 등에 담겨 있는 평화 관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이어 그들이 제주도와 밀접한 사상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화해와 상생'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리 말해둔다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평화사상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그같은 정신은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삼무(三無) 정신'에 대해서 과연 '정신'이라 할 수 있는가 의문도 제기되어 있는 듯 하다. '삼무(三無)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여기서는 지정선언문의

2. '화해와 상생': 한국의 평화사상 소묘

사전적으로 평화는 “1)평온하고 화목함. 2)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⁴⁾ 한자 표기가 가능한 만큼, 그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화’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은 역시 개화기 이후, 평화가 ‘Peace’의 번역어로 평화가 자리잡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⁵⁾ 대략 『독립신문』에서 오늘날 쓰는 의미로 ‘평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

그런 만큼, 한국의 ‘평화사상’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사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조금은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전통문화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다소 생경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오늘날 쓰고 있는 의미의 용례 역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오늘날 쓰고 있는 평화라는 개념에는, 좋건 싫건 간에 이미 서구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좋겠다.⁷⁾ 따라서 우리는 ‘평화’라는 용어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전통사상에 담겨 있는 평화 관념을 설명해내야 한다.

이렇듯 ‘평화’라는 말과 개념은, 전통 사상에서는 상당히 낯선 것이면서도, 19세기 이후에는 아주 익숙한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용어’가 없다고 해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번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언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적 폭력과 분쟁, 전쟁과 같은 갈등이 없는(혹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 그리고 그 같은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라 부르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4)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5)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하영선편, 『21세기평화학』 (풀빛, 2002) 참조.

6) 『독립신문』 1899년 7월 22일자 사설 「평화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이호재(편), 『한반도평화론』 (법문사, 1989), p. 347.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의 논평을 참조.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의 적극적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⁸⁾

역사적으로 보자면, '평화'(Peace)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때에도, 관념으로서의 '평화'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그리스 시대에는 'eirene'(평화의 여신), 구약성서에서는 평화사상으로서의 'shalom'(shalom), 로마시대에는 정치적 평화를 나타내는 말로 'Pax Romana'가 있었다.⁹⁾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평화' 관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분명한 형태를 가진 사유체계로 응집되기 보다는 '삼교'(三敎)로 불리는 독자적인 세계관, 즉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고유신앙 속에 담겨 있었다.

이미 나와 있는 연구를 통해서 유교, 불교, 도교에 담겨 있는 재구성된 평화 관념을 참조할 수 있다.¹⁰⁾ 그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삼교 이외의 고유신앙에 담겨 있는 평화 관념이라 할 수 있겠다. 미리 말해둔다면 제주도의 고유한 신앙과 사상에서 그런 양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¹¹⁾ 필자가 보기에,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 사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역시 그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임시 방편으로 여기서는 유교, 불교, 도교(도교)에 담겨 있는 '평화'

8)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이라 했을 때, 그 평화가 의미하는 바 역시 그렇다.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제 과정을 말한다." 평화의 섬 홈페이지 <http://peace.jeu.kr>.

9) '평화'의 다양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는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下)』(東京大學出版會, 1989) 참조.

10) 김석근, "동양의 평화사상에 대한 시론적 재구성: '세계관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창간호. 2004.

11) 신라 말기를 살았던 최치원은, 「鸞郎碑序」에서 유교, 불교, 도교 외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말한 '현묘한 도' 내지 '풍류'라는 것의 정확한 실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유, 불, 도 삼교를 포함한다는 것. 다시 말해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가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사상을 통해서 한국의 평화사상을 재구성해 가기로 하자. 먼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는 유교의 경우,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으로서의 ‘대동(大同)’ 세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대동(大同) 사회, 그것은 유학이 그리는 이상사회로서, 평화가 구현된 유토피아 사회에 다름 아니었다. 『禮記』 「禮運」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¹²⁾ 요약하자면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모략이 있을 수 없었고 절도나 폭력도 없었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계를 ‘대동’이라 한다”고 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주도의 삼무 정신과 많이 닮아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치의 세계에서는 ‘인정(仁政) 내지 ‘왕도정치(王道政治)’가 주장되었다. ‘형(刑)’과 ‘정(政)’이 아니라 ‘예(禮)’와 ‘덕(德)’에 의한 정치가 행해지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의 평화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관계, 즉 크고 작은 힘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사대와 교란’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간의 의무를 전제한 ‘예(禮)’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섬겨야 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어여뵈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불교의 경우, 근본 원리에서부터 ‘비폭력과 평화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중시, ‘관계’를 중시하는 ‘연기(緣起)’, ‘업(業)’과 ‘윤회(輪廻)’

12)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두 만인의 것이다. 사람들은 현한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았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노인에게는 그의 생애를 편안히 마칠 수 있게 하였으며 장정에게는 충분한 일을 시켰고 어린아이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했으며, 과부와 고아, 불구자 등에게는 고생없는 생활을 시켰고, 성년 남자에게는 직분을 주었으며, 여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남편을 갖게 했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어 낭비되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았으며,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만 쓰지 않았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모략이 있을 수 없었고 절도나 폭력도 없었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계를 ‘대동’이라 한다.” (『禮記』 「禮運」篇)

관념, 그리고 '자비(慈悲)'와 '보시(報施)' 정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분쟁을 일삼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가 폭력과 전쟁을 비판하거나 왕에게 전쟁을 그만둘 것을 설파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법(佛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성스러운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존재를 설정한 것 역시 그 같은 폭력과 전쟁을 넘어서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무위자연'을 주장하는 노장사상,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다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한 도교 역시 평화지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자연스러운 흐름, 도(道)에 따르라고 했으며, 만물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는 물<水>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아가 나라를 적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고 했으며(小國寡民), 소박하고 조용한 작은 국가에서 무기와 병사는 쓸 데가 없고, 전쟁은 꺼린다.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장례의 예로서 처한다고 했다(『노자』 31장). 평화사상가 함석헌은 노장사상에 깊이 침잠했으며, 노자를 가리켜 인류 최초의 평화주의자라 선언하기도 했다. "노자는 전쟁의 무익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국가의 정책으로 쓰여서는 안되고, 국가간에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¹³⁾

여기서 발표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 도가 사상에는 이미 '평화' 지향성이 담겨 있다는 것. 동양에서 그리고 전통시대 한국에서는 그들 상이한 세계관이 오랫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고서 공존<和諧>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입과 전파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기도 했지만—예컨대 불교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토착 신앙과의 갈등, 주자학 도입 이후의 불교 비판 등—,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는 유교, 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신자이면서도 아들딸 낳고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13) 『함석헌전집』 20(한길사, 1987), p.31

3. 평화사상과 제주도: '화해와 상생'의 구현

제주도가 섬과 바다로 특징 지워지는 자연환경, 그리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풍속을 지금까지 줄곧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직접 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 역시 십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을 때의 감흥을 잊을 수가 없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제주도의 경우, 우선 거시적으로 한국, 한국 문화의 일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해왔다고 해도 되겠다. 한국 문화의 '보편성' 내지 일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토착적인 성격, 즉 '특수성' 내지 고유성을 강하게 지녀왔다고 하겠다. 그 같은 사실 자체,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의 총체적 성격을 말해준다고 해도 좋겠다. 그 같은 측면을 먼저 짚어 두고자 한다.

그 같은 측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앞에서 한국의 평화사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검토한 유교, 불교, 도가의 평화 사상 역시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노장사상과 도가의 경우, 제주도의 자연 환경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미 강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이하에서는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유교와 불교

우선 유교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유교에서 평화적인 이상적인 사회로 상정하고 있는 대동(大同)사회의 모습은, 삼무(三無) 정신으로 특징 지워지는 제주도 사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기」 「예운」 편에서 '이상적으로' 그려던 모습이, 어쩌면 제주

14) 화가 이중섭(1916-56)이 제주 바닷가에서 스케치한 그림들을 보면 거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주도에 유교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학(주자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초기에 향교가 설립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서원과 서당 역시 확인되고 있다.¹⁵⁾ 또한 유교가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어느 정도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남아 있는 세 곳의 향교[제주 3향교: 제주향교(유형문화재 제 2호), 대정향교(유형문화재 제 4호), 정의향교(유형문화재 제 5호)]와 오현단(제주도 기념물 제 1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醮祭)'가 행해졌다는 점 등을 통해서¹⁶⁾,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 정도는 조심스레 추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직접 답사한 경험이 있는 '제주향교'의 경우, 태조 3년(1394)에 세워졌다가 여러 차례 옮겨졌으며, 순조 27년(1827)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태조 3년 그러니까 건국 직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필자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게다가 공자를 위주로 공문(孔門) 10철, 송나라 6현, 신라·고려·조선의 18현을 모신 大成殿(文廟), 5성의 위패를 모신 계성사(啓聖祠)¹⁷⁾, '명륜당'의 현판에 적힌 '新安朱熹書(신안주희서)'라는 문구—그러니까 주희의 글씨를 모사(模寫)해서 새긴 것이다—, 봄가을로 지내는 석전제 등에 관해서 듣고서는, 잠시나마 깊은 상념에 잠겼던 기억이 남아 있다.

15) 『濟州道誌』 제 1권, pp. 826-843 참조

16) 『濟州道誌』 제 3권, pp. 1111-1126쪽 참조. 유교식 마을제의 경우 토착 무속신앙과 융합된 측면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는 마을의 자치와 관련된 정치적 집회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마다 무사하길 비는 祝文으로 보아 堂神仰의 變形임을 알 수 있다. 심방이 굿으로 하는 의례가 釋奠祭의 의전절차에 따라 신에게 소망하는 축문을 읽는 形式儀禮로 변한 것이다.”(1110쪽)

17) 계성사는 5성의 아버지 위패를 봉안하여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제향된 위패는 공자의 아버지인 齊國公 孔叔梁紇(제국공 공숙양홀), 안자의 아버지인 曲阜侯 顏無繇(곡부후 안무요), 증자의 아버지인 萊蕪侯 曾點(래무후 증점), 자사의 아버지인 齊景公 齊景公(시경공 시경공), 맹자의 아버지인 諸國公 孟軻이다.

태종 8년(1408년),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대정현 성내에 창건한 대정향교¹⁸⁾나 1423년(세종 5)에 세워진 정의향교 역시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어서, 성현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 유교 윤리의 보급과 교육(교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현단의 경우,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防禦使)로 부임하여 교화 발전에 공헌한 다섯 분을 배향했던 옛 터라 한다. 오현은 중종 15년(1520)에 유배된 충암 김정선생, 중종 29년(1534)에 목사로 부임했던 규암 송인수, 선조 34년(1601)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 광해군 6년(1614)에 유배된 동계 정온과 숙종 15년(1689)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 등 다섯 분이다. 숙종 8년(1682) '굴림서원'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아 4현을 봉향하다가 숙종 21년(1695) 송시열이 추향됨으로써 5현을 배향케 되었다. 그 후 고종 8년(1871년) 내려진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으나, 그 후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어 불교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단적으로 불교의 존재를 인식시켜 준다고 하겠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64개의 사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제주도에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말까지 도내 불교유적과 사찰, 암자 소장 불교 유물을 조사했다고 한다. 특히 고·량·부 삼성 시절에 세워졌다는 존자암지(유형문화재 제 17호), 고려시대 석탑 불탑사 5층 석탑(보물 1187호)은 제주도의 불교 역사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외에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약천사²⁰⁾, 법화사지(기념물 13호), 복신미륵(민속자료 제 1

18) 대정향교의 '명륜당(明倫堂)'이라는 액자는 순조 때 변경봉(邊景鵬) 현감이 주자필(朱子筆)을 본받아 게시한 것이다. 대정현 훈장(訓長) 강사공(姜師孔)은 당시 유배되어 왔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에게 요청하여 '의문당(疑問堂)'이라는 액자를 받아 걸기도 했다. 현재 향교에 보관중인 '의문당' 액자를 보면, 『道光二十六年丙午十一月 日 晉州後人姜師孔 請謫所前參判金正喜 題額謹揭 刻字鄉員吳在福 孔子誕辰二四七九年 戊辰春再揭』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니까 1846년(도광 26년)에 추사 김정희에게 요청한 것이며, 각자(刻字)는 향원(鄉員) 오재복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cyber.jeju.go.kr> 문화재 부분 참조.

19) 삼백여 개에 달하는 사찰은 대부분 불교 유적과 사찰, 암자 소장 불교 유물

호) 등이 불교의 영향력을 짐작케 해준다.

불교와 관련해서,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된 제주불교의식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같은 불교의식에 속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불교의식은 제주에 불교가 유입, 전승되면서 제주의 전통 문화와 연계되어 육지 지방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교의례 중에서 범음과 재 공양은 제주도 불교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민중들의 호응을 얻고, 대(代)를 이어 구전되어 내려왔다고 하며, 세시의례 중에서는 칠성제와 산신제가 육지지방에 비해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의 무속의례 중 산신제와 칠성제가 불교의례와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외에도 육지의 불교의례와 다른 측면이 많다고 한다.²¹⁾

이처럼, 유교와 불교의 경우,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신적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무리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와 제주불교의식에서 보듯이,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육지)과 일반적인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제주도의 고유한 상황과 문화가 반영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동시에 유교, 불교, 도가의 한국화를 통해서 형성된 평화 사상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제주적인 것: 고유 문화와 사상

유교, 불교, 도가사상이 한국의 전통사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

20) 자세한 것은 <http://www.yakchunsa.org> 약천사 홈페이지 참조.

21) 육지지방에 비해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사자천도례가 중시되어 더욱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고, 천도제인 49제시에도 육지지방에서 소멸된 시왕각배를 시왕각청으로 순당하고 있고, 생전예수제의 경우에도 육불(관불)의식이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식 음악인 안채비 소리는 태징, 목탁, 북을 치면서 엄불하는데, 육지지방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며, 제주지방의 토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화청(회심곡)도 불교의 회심곡을 변이시켜 육지지방에서 불려지는 소리와는 다른 제주적인 소리로 불려지고 있다. <http://caheriginu.go.kr> 문화재 부분 참조.

들입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는 아니라 하겠다. 한국의 전통사상 분야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들 3교는 역시 일정한 시점에 중국에서 전래된 ‘외래사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 토착신앙 혹은 고유신앙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흔히 나오는 질문은, 과연 한국의 전통적인 것 정말 한국적인 것 본래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은 유교, 불교, 도가사상이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국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여운이 남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흔히 무속, 샤머니즘, 민간신앙 등의 존재를 상정하면서도, 분명하지 않다는 난점이 없지 않다. 그만큼 유교의 영향이 컸다는 말도 되겠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그 같은 측면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겠다. 이미 독자적인 개벽신화와 개국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²²⁾ 특히 개벽신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같은 부류의 창세신화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³⁾ 삼성혈(三姓穴)에서 엿볼 수 있는 개국신화, 즉 탐라건국 신화 역시 고대국가 성립을 전후한 시기의 씨족, 혹은 부족간 정치적 연합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²⁴⁾

그 같은 신화와 전설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을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적 질서에 통합된 이후에는 제주도의 토착적인 고유 신앙의 일단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⁵⁾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 토착 신앙과 정신세계는 오랜 역사

22) 개벽신화와 개국신화는 <http://myth.tamnatour.com> 신화의 섬! 제주 디지털콘텐츠 참조.

23)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단군신화를 보더라도 우주와 삼라만물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24) 이에 대해서는 www.samsunghveol.or.kr 삼성혈 홈페이지 참조.

25) 제주도는 도이(島夷), 동영주(東瀛洲),涉라(涉羅), 탐모라(耽牟羅), 탁라(毛羅) 등으로 불리어 왔다. 흥조4년(1653년)에서야 제주도의 유일한 ‘정신문헌(正中文獻)’

와 전통을 가지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무속과 샤머니즘을—예컨대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중요민속자료 제 240호)나 제주 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 등—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도 있듯이, 무속과 샤머니즘 세계관은 불교의 그것과 나란히 지칭되었으며, 서로 융합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던 듯 하다.²⁶⁾ 앞에서 본대로 제주도 불교의식에서 산신제와 칠성제가 중시되었다는 것 역시 그 같은 점을 방증 해준다고 하겠다. 그런 사정이 고 보니, 제주도의 경우, 자연신 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수많은 신들이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제주도를 가리켜 “1만 8,000여 신들이 사는 ‘신들의 천국’”(Newsweek)이라 한 것은 그 같은 측면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처럼 수많은 신들이 인간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유체계 하에서는, 인간들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끝간데까지 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신들이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이른바 제주도의 ‘삼무(三無)’ 정신은, 일차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같은 믿음을 담보해주는 많은 신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식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아울러 그 같은 사유체계는 인간들에게 많은 신들에 대한 외경과 더불어 겸손함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신을 믿는 종교에 대해서도 기꺼이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다. ‘세계관’의 구조와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일신 신앙체계는 교리 체계에 이미 상당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기로 한다.²⁷⁾

이라 할 수 있는 『耽羅志』가 만들어 졌다.

26) 토착신앙과 외지에서 전래된 불교의 갈등을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김석근, “토착민간신앙과 불교의 힘겨루기: 갈등과 습합의 역사”, 계간 『전통과현대』 1998 가을호 참조.

27) 일부 천주교도들에 의한 신당(神堂)과 신목(神木) 파괴가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일례가 11월(1991년)은, 그와 더불어, 대개 인식되는 바 같다. 한국로 제주도에

3) 화해와 상생의 구현

앞에서 본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 한국의 전통적인 평화사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고유한 문화와 사상 역시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언제나 그런 평화가 구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실의 역사는, 그와는 반대로 ‘고통과 억압’, 그리고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자적인 개벽신화와 개국신화를 가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탐라)로 출범했던 제주도지만, 삼국시대 이후 역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혹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속국이 되었다가, 지방 편제인 탐라군이 되기도 했다.²⁸⁾ 조선시대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유배지(流配地)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날,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외국의 침략에 시달리거나 기지로 활용당하기도 했다. 제주도를 최후 거점으로 삼아 원나라에 항거했던 삼별초에 대해서, 몽고군은 그들을 진압하고(1273년, 원종 14) 탐라총관부를 설치, 거의 1세기 동안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는, 태평양전쟁을 치르기 위한 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더구나 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1945)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4·3사건’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이픔과 상처를 겪기도 했다.²⁹⁾ 그것은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그 깊은 속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경우, 끊임없이 ‘피의 복수’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 예컨대 중동 지역의 그것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는 교회 108개, (천주교) 성당 18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濟州道誌』 제 1권, pp. 1017-1025와 <http://www.cvber.jeu.go.kr> 참조.

28) 제주라는 명칭은 1214년(고종)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9) 4·3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평화의 관심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제기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4·3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채택, 4·3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2005년 12월 29일 제주시에서 열린 ‘4·3 40주년 추모대회’에서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감히 말해본다면, 정작 빛나는 것은 그 같은 비극과 갈등의 반복과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싸안는 화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승화시켜 왔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현실을 참아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념적으로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억압, 갈등과 폭력을 체험해온 제주도가 마침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기대와 전망: '평화' 연구와 실천의 중심

21세기와 세 번째 천년대(Millennium)의 도래는, 인간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지난 20세기는 극단의 세기로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러와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갈등과 폭력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그 같은 상황은 자연스레 '평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평화는 세계적인 관심과 주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갖는 의미는, 제주도나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것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이른바 '평화의 도시'가 없지는 않았다. 예컨대 일본의 히로시마(廣島), 오키나와(沖縄), EU를 대표하는 평화의 도시 독일의 오스나브뤽(Osnabrueck), 스위스의 제네바(Geneva)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그들 도시와는 달리, 제주도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른 시일 내에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더라도, 제주도의 경우 '세계 평화의 섬'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해왔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억압, 갈등과 폭력을 체험해왔으며, 더구나 현대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43이라는 비극을 몇 십 년 동안 가슴에 떠안고서 지내 왔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도에서는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제주국제평화센터,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평화연구소 등)이 착착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실행할 것,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것, 또 평화 실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³⁰⁾

이미 예고된 대로 지난(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다.³¹⁾ '국제 자유도시'를 향해서 크게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같은 출범은, 기나긴 제주도 역사에서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해도 좋겠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청사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 현실로 만들어가는 가속기(加速機)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제주도와 제주 바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필자는, 제주도가 '갈등 해소와 평화 정착'의 섬으로, 나아가서는 '국제 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이고, 나아가 21세기 평화 연구와 실천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006.07.26)

30)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언문」 참조.

31)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 사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이나 대만 등에 비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http://peace.jeu.kr> 세계 평화의 섬 홈페이지
<http://www.jeu.go.kr>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cyber.jeu.go.kr> 제주도 관광정보 제주도청 사이버제주
<http://chejuhak.new21.net> 사이버 제주문화역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amsunghyeol.or.kr> 삼성혈 홈페이지
<http://www.jeu43.org> 제주4·3연구소 홈페이지
<http://myth.tamnatour.com> 신화의 섬! 제주 디지털콘텐츠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ntent.com> 신화의 섬, 디지털 제주21 (한국문화콘텐츠
츠진홍원 문화원형사업 홈페이지)
『濟州道誌』 제 1·2·3권. 제주도 1993.
『문화유적총람 CD-ROM』 제 1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 김석근, “토착 민간신앙과 불교의 힘겨루기: 갈등과 습합의 역사”, 계간
『전통과 현대』 1998년 가을호
김석근,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평화 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 (폴빛, 2002).
김석근, “동양의 평화사상에 대한 시론적 재구성: ‘세계관’의 구조와 특성
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2004년 창간호
윤사순, “한국유학의 평화사상”, 이호재편, 『한반도평화론』 (법문사,
1989)
이호재(편), 『한반도평화론』 (법문사, 1989)
정지석, “함석헌의 평화사상: 반전평화주의”, 『씨울의소리』 2004년 1·2
월호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 (폴빛, 2002)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하영선편, 앞의 책(2002)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下)』 (東京大學出版會, 1989)

<ABSTRACT>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he Idea of Peace of Korea and the Island of World Peace, Jeju

Seog-Gun Kim

(Yonsei University)

With the coming of new century, once there was an optimistic prospect of the World politics and human history. However the terror and war did not disappeared, and the conflict and violence did not ceased. Now the topic of 'peace' has become a worldwide concern and hot issue. In that context, 'the Island of World Peace, Jeju' could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World history beyond the Jeju Islans and Korea.

This paper is going to consider the Island of World Peace, Jeju in the view of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ideas on peace. The declaration of the Island of World Peace had mentioned that it has succeeded the spirit of 'Three Nothingness' of Jeju Island creatively. And this paper is going to assert that Jeju's spirit of 'Three Nothingness' has a strong affinity with the Korean traditional ideas on peace, and the indigenous culture of Jeju had flourished on the bases of Korean traditional ideas on peace.

In other words, the ideas or thoughts of Jeju has formed its own spirit of peace in the long history of Jeju Island, therefore it ha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s peculiar culture and feelingst.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formed as one part of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s of peace. Therefore it has ha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So we can notice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idea on peace of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s(for example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Shamanism) and that of Jeju Island. It can be summarized as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t has become the basis of Korean thoughts of peace through long history, and such spirit has been embodied in a concrete form at the Jeju Island.

In July 2006, the Jeju Island has launch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pened a new age of Free International City. We hope that Jeju Island would become not only the island of conflict dissolution and peace settlement but also the center of peace research and practice of the world in 21th century.

Key Words: the Island of World Peace, Jeju,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Free International City, Three Nothingnes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flict dissolution, peace settlement